

▪ 『경향잡지』 1971년 5월호(단행본 1238호) pp.92~93(492~493)

군내에서 수녀 활동

군종단에 바오로회 수녀가 근무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수녀들의 군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수녀들은 군인 교리, 부대 방문, 영창, 병원 위문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대구, 원주, 광주, 논산, 포항에서의 바오로회, 분도회, 까리따스회, 예수성심 수녀회 등이다.

지난 날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노고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경향잡지』 1971년 7월호(단행본 1240호) p.35(635)

평신도 사도직 상임위원 주소록 ②

- 대전 교구, 수원 교구 -

-대전 교구-

△ 총 재 △

△ 황민성:천주교 대전 교구장

△ 지도 신부 △

△ 백남익:교구청 사목국장

△ 고 문 △

△ 강신업:충남 대학교 농대학장, 농학박사

△ 배영준:대전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 회 장 △

△ 오덕균:충남 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 부회장 △

△ 김석배:논산 본당 부회장, 법무사

△ 장익화:대전 교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이성묵:대전 교구 교직자 협의회 부회장, 대전 상고 교사

△ 상임 위원 △

△ 서윤환:대전 성남동 본당 총회장

- △ 송승호:학사회 대표, 건축사
- △ 차영선:대학생회 대표
- △ 노창선:꼬미시움 단장
- △ 오옥균:JOC 대표
- △ 김춘자:여성단체 협의회 부회장
- △ 평의원 △
- △ 박헌철:논산 본당 총회장, 병원장
- △ 이수진:서산 본당 총회장
- △ 윤정완:예산 본당 총회장
- △ 유진훈:조치원 본당 부회장
- △ 조시연:대천 본당 부회장
-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71년 8월호(단행본 1241호) p.19(719)

【신부 이동】

〈대전 교구〉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윤여홍(바오로)	구합덕	군중
조병기(바오로)	서천	당진
구자오(분도)	당진	광천
이계창(아우구스띠노)	대천	대전 정동(새 본당)
김병재(바오로)	태안	구합덕
이종대(요셉)	구합덕(임시)	대천
김기룡(요한)	논산 보좌	서천
이종린(요아킴)	휴양	신탄진(새 본당)
정용택(요한)	신탄덕 보좌	태안
김영교(베드로)	예산 보좌	로마 유학
백승옥(이시도로)	새 신부	논산 보좌
여충구(마르꼬)	새 신부	서산 보좌

고영환(마태오)	새 신부	예산 보좌
김진화(바오로)	새 신부	주교좌 제2보좌
김신호(프란치스코)	새 신부	공주 보좌
안문기(프란치스코)	서울 대학원	사목국장 보좌 및 학생 마스크 담당

■『경향잡지』 1971년 8월호(단행본 1241호) p.25(725)

… 네째) 김 대건 신부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이가 가까운 일가 중에 한 분 있었는데 이미 작고하였으나 지금 살아 있는 친척 중에는 김 대건 신부와 12촌 되는 김 마차아 현용(顯龍)씨가 가장 김 대건 신부 모습을 닮았다고 했다.

김 현용씨로 말하면 1939년부터 필자와 자주 면담 상봉하여 오던 분인데 지금은 논산읍 부창동 45번지에 살면서 논산 본당 회장으로 있다.

올해 77세인 데도 허리 하나 굽지 않은 건장한 노인이다.

3월 6일 밤으로 오 경호(요셉) 선생(논산 대건 중고등학교장)에게 지금 전보를 치는 한편 장거리 전화를 걸어 필요한 자료-그분의 회갑 때 찍은 사진과 지금의 사진, 가족 사진, 김 병태씨 가족 사진-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71년 8월호(단행본 1241호) p.35(735)

-대전 교구내 신용협동 조합 현황은 어떨지요-

“현재 충남에는 1969년에 조직된 지구 평의회(地區評議會) 산하에 53개의 단위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 총수는 3천 5백명, 총 자산(資産)은 약 3천 7백만원인데 명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당 조합은 18개이며 조합원 수는 약 2천 4백명, 총 자산은 2천 6백만 원입니다. 본당 조합중 대전 시내의 목동, 대흥동, 대동 본당과 천안, 예산, 논산, 성환 본당의 조합들은 충남 지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합들입니다. 특히 1968년에 발족한 목동 본당은 변두리에 위치한 가난한 본당이면서도 가장 성적이 좋아 현재 540만원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사(會計士)에게 봉급까지 지불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 (이하 생략)

■『경향잡지』 1971년 9월호(단행본 1242호) p.95(895)

논산 지구 군인 신학생회 발족

군종 이 군형 신부의 지도하에 논산 지구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학생 약 80여 명은 지난 8월 신학생회를 조직했다.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부대내의 그리스도화를 꾀하고 대화를 통해 군복무 의욕을 증진시키며 타에 모범될 것을 원칙으로 내 세운 신학생회는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향잡지』 1972년 6월호(단행본 1251호) p.94(594)

논산 훈련소 성모상 제막식

지난 4월 16일 10시 정병 육성의 요람지로 육십만 대군의 본산인 논산 훈련소 천주교회에 신자 장교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성모상을 건립하고 제막식 및 기념미사를 거행했다.

부소장「김 선일」장군 및 39명의 가톨릭 장교회원들은 입소하는 병사들의 관문인 훈련소에 기도를 통한 신앙심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성모상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검소한 생활로 성금을 모은 것이다.

이날 제막식 및 기념미사는 군종 신부단 총대리 김 계춘 신부, 논산본당 손 말재³²⁵ 신부 및 당 부대 이 군형 신부가 활동 집전하였는데 약 400여 명의 장, 사병들이 참석했었다.

■『경향잡지』 1973년 1월호(단행본 1258호) pp.64~66(64~66)

□ 신부이동

교구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 (중략) ...			
대전	이인하(베네딕토)	천안주임	교구 총대리겸 성모병원장
	박노열(바오로)	장항주임	천안주임
	유봉운(야고보)	예산주임	부여(신설) 주임
	유인성(프란치스코)	공주주임	대동주임

대전	백남익(디오니시오)	사목국장	대전 유천동(신설) 주임
	손만재(요한)	논산주임	예산주임
	조성옥(요한)	대동주임	교구사무국장겸경리
	유성숙(루도비코)	사산주임	조치원주임
	이규남(요셉)	신합덕주임	서산주임
	전혜광(야고보)	상서국장	주교관비서
	김영곤(필립보)	조치원주임	논산주임
	김동억(바오로)	성환주임	교구사목국장
	윤영균(미카엘)	관리국장겸 성모병원장	공주주임
	김순호(프란치스코)	온양주임	성환주임
	유재식(안셀모)	연무대주임	온양주임
	김종국(발라바)	규암주임	장항주임
	구자오(베네딕토)	광천주임	신합덕주임
	안문기(프란치스코)	사목국보좌	규암보좌
	박종우(안드레아)	천안보좌	연무대주임
	백승옥(이시도로)	논산보좌	광천주임
	김진화(바오로)	대흥동보좌	천안보좌
	구자윤(베오)	새 신부	예산보좌
	윤인식(바오로)	"	논산보좌
	양택규(안드레아)	"	대흥동보좌

■ 『경향잡지』 1973년 4월호(단행본 1261호) p.64

◇ 평신도 재교육 활발

〔대전〕 대전교구 사목국과 교구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교구장 황민성 주교의 금년도 사목지침에 따라 평신도 재교육을 활발하게 펴나가고 있다.

3월 10일과 11일 논산성당에서 있는 신자피정 겸 연수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공소회장 연수회와 교구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향잡지』 1973년 6월호(단행본 1263호) p.33

한국 천주교 사회사업 시설(단체) 현황

… (중략) …

대전교구

▲ 논산 천주교회 양로원

▲ 덕산 신생원

▲ 요한 23세 소년들 마을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73년 7월호(단행본 1264호) p.108

▲ 논산^{論山} 본당(주임 김영곤 신부) 성모의 밤 성황:신자 학생과 내빈 7백여 명, 그리고 때마침 교구주최 피정점 연수회에 참석했던 50여명의 공소회장들도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미사는 황민성 교구장이 집전, 강론은 교구 사목국장 김동억 신부가 담당 내빈들을 감격시켰다고 한다.

■ 『경향잡지』 1974년 1월호(단행본 1270호) p.57

□ 신부이동

교구	신부명	계시던곳	가신곳
… (중략) …			
대전	구자륜(비오)	대흥동 보좌	홍산 주임
	윤인식(바오로)	논산 보좌	서산 보좌
	양택규(안드레아)	대흥동 보좌	온양 보좌
	장영식(토마)	새 신부	천안 "
	유영소(블라시오)	"	논산 "
	송갑익(요한)	"	당진 "
	유호식(아우구스티노)	"	예산 "
	윤인룡(바오로)	"	대흥동 "
	이세진(요한)	"	군목(임시로 부여 주임신부를 도와줄 것)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74년 11월호(단행본 1280호) p.56

□ 교구 인사 이동 □

[서울]〈8월 26일 자〉(괄호 안은 전임지).

… (중략) …

[대전]〈9월 6일 자〉 조성옥 논산 대건중고교(구합덕), 유영소 구합덕 임시(논산 보좌).

… (이하 생략)

■ 『경향잡지』 1975년 10월호(단행본 1291호) p.69

◇ 교구 인사 이동

[원주] 7월 31일 자(괄호 안은 전임지).

… (중략) …

[대전] 8월 27일 자. 김영환 신부·부교구장(주교좌 주임), 김종국 신부·교구 사목국장(장항 주임), 이인하 신부·대전 성모병원장(부교구장 겸 성모병원장), 유인성 신부·주교좌 주임(대동 주임), 백요한 신부·서산 주임(문창 주임), 백남익 신부·해외문제 주교대리 겸 서독유학(유천 주임), 유성숙 신부·논산 루르드 성모 본당 주임(조치원 주임), 이규남 신부·대동 주임(서산 주임), 조성옥 신부·유천 주임 겸 대지학원(유천 임시주임), 김영근 신부·논산 새 본당 주임(루르드 성모 본당주임), 김동익 신부·공주 주임(교구 사목국장 겸 가톨릭문화관장), 윤영균 신부·문창 주임(규암 주임), 구자륜 신부·규암 주임(홍산 주임), 유호식 신부·태안 주임(태안 주임서리), 윤인용 신부·장항 주임(천안 보좌), 우제국 신부·조치원 주임(주교좌 보좌), 변갑철 신부·청양 주임(예산 보좌), 이상용 신부·홍산 주임(공주 보좌), 라기순 신부·주교좌 보좌(당진 보좌), 박상옥 신부·천안 보좌(논산 보좌).

■ 『경향잡지』 1977년 12월호(단행본 1317호) p.94

□ 교구 인사 이동 □

[인천]〈10월 4일 자〉(괄호 안은 전임지).

… (중략) …

[대전] 10월 22일 자. 유인성 신부·온양주임(대흥동), 오 신부·논산 주임(성남동), 유성숙 신부·예산 주임(논산), 손만재 신부·대흥동 주임(예산), 김영곤 신부·성남동 주

임(논산 중앙), 강 신부·규암 주임(유구), 유재식 신부·선화동 주임(온양), 정용택 신부·천안 제2주임(대천), 백승옥 신부·논산 중앙 주임(광천), 구자륜 신부·광천 주임(규암), 유영조³²⁶ 신부·대천 주임(신탄진), 박신부·유구 주임(삽교), 이상룡 신부·휴양(홍산), 조장윤 신부·신탄진 주임(예산 보좌), 조규식 신부·조치원 주임(대흥동 보좌), 우희수 신부·신례원 주임(공주 보좌), 윤종학 신부·군중입대시까지 대흥동 보좌(천안 보좌), 이철 신부·삽교 주임(선산 보좌), 신상옥 신부·홍산 주임(대흥동 보좌).*

■『경향잡지』 1993년 4월호(단행본 1501호) p.139

◇ 구인덕 신부 선종

우리나라에서 60여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구인덕(본명 셀레스탱 코요스,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신부가 지난 3월 3일 수원 경로 수녀원에서 선종했다. 향년 86세인 구인덕 신부는 1908년 프랑스 몰레옹 지방에서 출생하여 1933년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입국, 경기도 안성과 충남 논산 등지에서 사목 활동을 하였다. 서울 대신학교 교수로 있던 중 6.25를 맞아 납북되었다가 1953년 4월에 풀려난 구 신부는 프랑스 본국으로 송환되기도 하였다. 그때의 회상기인 「나의 북한 포로기」의 저자인 그는, 1955년에 재입국하여 선종하는 날까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 +

■『경향잡지』 1996년 6월호(단행본 1539호) pp.60~61

그의 집안은 본래 감리교를 다녔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에서 천주교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고, 도대체 천주교 뭐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해졌다.

그가 아홉 살 때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논산성당의 공 율리아노 신부를 찾아가셨다. 평소 궁금해하던 대로 여쭙었더니, 그 프랑스 신부님은 큰 소리로 껄껄 웃으시며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시고는 「루터전」을 빌려 주셨다.

다음날까지 그 책을 다 읽으신 어머니는 “이제 교회 안 간다.”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시고는 그 길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셨다. … (이하 생략)

Ⅲ. 교세통계표(1921~2020)³²⁷

연도	총신자 수		
	남	여	계
1921			1,007
1922			1,066
1923			1,312

1924년부터 1948년, 자료 없음

1945	815	857	1,672
------	-----	-----	-------

1950년부터 1952년, 자료 없음

1953	1,064	1,160	2,224
1954	1,132	1,239	2,371
1955	1,196	1,339	2,535
1956	1,403	1,530	2,933
1957	1,585	1,764	3,349
1958	1,248	1,464	2,712
1959	1,231	1,475	2,746
1960	1,364	1,588	2,952
1961	1,381	1,591	2,972
1962	1,501	1,764	3,265

1963	1,503	1,826	3,329
1964	1,573	1,908	3,481
1965	1,872	2,172	4,044
1966	1,973	2,279	4,252
1967	2,062	2,406	4,468
1968	2,167	2,586	4,753
1969	2,232	2,683	4,915
1970	2,339	2,815	5,154
1971	2,378	2,897	5,275
1972	1,780	2,213	3,993
1973	1,773	2,205	3,978
1974	2,287	2,839	5,126
1975	1,067	1,347	2,414
1976	1,122	1,423	2,545
1977	1,117	1,420	2,537
1978	1,099	1,456	2,555
1979	1,069	1,442	2,511
1980	1,085	1,440	2,525
1981	1,066	1,446	2,512
1982	1,048	1,341	2,389
1983	1,201	1,726	2,927
1984	1,188	1,676	2,864
1985	1,258	1,888	3,146
1986	1,285	1,853	3,138
1987	1,318	1,929	3,247
1988	1,292	1,855	3,147
1989	1,140	1,489	2,629
1990	1,619	2,458	4,077
1991	1,565	2,535	4,100
1992			
1993	1,469	2,426	3,895
1994	1,486	2,446	3,932

1995	1,587	2,607	4,194
1996	1,563	2,394	3,957
1997	1,608	2,445	4,053
1998	1,597	2,502	4,099
1999	1,302	1,823	3,125
2000	1,000	1,406	2,406
2001	1,005	1,426	2,431
2002	1,039	1,470	2,509
2003	1,011	1,407	2,418
2004	708	993	1,701
2005	707	991	1,698
2006	740	1,054	1,794
2007	768	1,089	1,857
2008	801	1,149	1,950
2009	803	1,188	1,991
2010	845	1,237	2,082
2011	863	1,240	2,103
2012	742	1,047	1,789
2013	807	1,163	1,970
2014	838	1,191	2,029
2015	868	1,211	2,079
2016	903	1,245	2,148
2017	972	1,275	2,247
2018	1,027	1,262	2,289
2019	1,055	1,276	2,331
2020	1,060	1,276	2,336

IV. 선교사들의 서한³²⁸

1. 초대 루블레(황해중) 신부의 서한

1) 제1신(1922년 연말 보고)

발신일: 1922. 3. 21, 논산

수신자: 뫼텔 주교

논산본당 성사 집행 보고서

주교님,

두 차례의 공소를 치르고 나서 이제 저는 주교님께서 저에게 맡기고자 하신 이 지역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개 공소, 아니 17개 공소 중에서 등리는 비록 교세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을지라도 작년까지 선교사의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5개 공소는 옛날에는 적어도 신입 교우와 예비자 면에서 번창하였으나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즉 더 나쁜 배교자들만 있습니다. 개양이란 작은 마을은 번창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인도 대동소이합니다. 수가 적은 7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은 금년에는 선교사의 방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10개 공소 중 2개는 큰 웅기 마을이고, 셋째는 작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공소를 했으며 나머지 7개 마을 중 4개는 교우수가 100여 명이고 나머지 3개는 50명

가량입니다.

평야 지대의 교우들과 산악 지방의 교우들을 비교할 때 특히 완전히 교우들 끼리 모여 사는 이들 담배 농사꾼들이 열심히 교우 정신이 있고 순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교우들이 외인들에 섞여 사는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진의 구읍인 연서와 논산, 특히 강경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중심지인데 그들의 영향력과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교우들이 성인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계략에 대항할 만한 매우 성실한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동료 신부들의 보고서들은 산악 지대 교우들의 불평들(당연한)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총독부는 담배 전매권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을 때³²⁹ 백성 중 가장 건전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지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배 농사로 살아 온 성실한 가족들이 생계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놀미(논산)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의 교우수가 아마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군산, 강경, 논산 등은 일찍이 행복했던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정말로 불안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들의 구령은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 놀미 교우들은 절반은 파괴된 낡은 헛간을 구입하고 그것을 성당과 신부 댁으로 개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루르드의 성모께서 계속 우리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면 계속하여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놀미의 루르드의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배교자들을 개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루블레

2) 제2신(1922년 연말 보고)

발신일:1922, 논산

수신자:뫼텔 주교

논산본당 보고서

사목 방문 때 주교님께서 논산본당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래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1. 여러 공소들의 평가

가을에 논산읍을 제외하고 13개 공소를 방문했습니다. 한 공소는 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3개 공소 가운데 2개의 큰 웅기 마을이 있는데 그것도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

4개 공소는 지금은 아주 작지만 8~10년 전에는 매우 중요한 공소였습니다.

3개 공소는 하루 공소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개 공소는 이틀 공소이고, 3개 공소는 3일 공소입니다.

논산읍으로 말하면 교우수가 100명가량입니다. 현재 전체 교우수는 1,200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유물인 3개 작은 공소 그룹은 각각 3일 공소를 치렀는데, 즉 독각골(東山里), 무동(金谷里), 죽평(山陽里)입니다. 네번째 하리(下里) 공소에는 세교우 가족이 있는데 사흘 공소였습니다. 그런데 몰락이 1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5리 거리의 3일 공소에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10리 거리의 2일 공소에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그런데 10리 거리의 4, 5일 공소에는 두 집만 남아 있습니다. 몰락은 8~1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부의 물질적 도움이 불충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리와 그 부근의 한 교우 마을이 마름이 면직당하자 회장을 선두로 해서 무더기로 교회를 떠났고 두 마을이 3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베르모렐 신부는 그 수가 1,000명에서 1,500명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교회로 돌아올 큰 희망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공소에도 여전히 몇몇 냉담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경에는 그 수가 상당하고 나머지도 비록 마음속으로는 배교하지 않았다고 해도 교우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수계하는 신자들에 대한 평가

교우들이 외인들에 섞여 사는 공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야 지대의 교우들은 산악 지방의 교우들만 못합니다. 현재의 지역은 모두 평야입니다. 도덕성이 약하고 성격이 지나치게 허약합니다. 아직 나쁜 정신의 흔적이 있고 주일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물질적인 형태

잘사는 사람은 겨우 세 집뿐이고 빛이 없는 집은 기껏해야 12가구이고 나머지 교우 집들은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경에는 교우의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성당 건축 기금 모금에서 그들은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강경의 한 부자만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신입금 10엔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웅기 마을을 제하고는 모두 논을 경작하고 있는데 겨우 그날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각출금은 거의 3,000엔에 달합니다. 대단한 노력입니다. 대부분은 받았습니다.

루블레

3) 제3신(1922년 연말 보고)

발신일:1922, 논산

수신자:뤼텔 주교

놀이(논산) 공소 알람표

옥정 論山 旭町

신기 論山 夫赤 新奇 제맛

석중 論山 上月 石宗 돌배미

하리 論山 城東 下里

불암 論山 城東 弗岩

강경 論山 江景

갯디 論山 彩雲

등리 論山 恩津 登里

연서리 論山 恩津 蓮西里 은진읍

독각골 論山 九子谷 東山里

무동 論山 九子谷 金谷里

죽평 論山 九子谷 山陽里

쇠목 論山 可也谷 中山里

갈매울 論山 可也谷 木谷里

한삼내 論山 伐谷 陽山里

중 밧탕이 大田 杞城 五里

루블레

4) 제4신(1922년 설문)³³⁰

발신일:1922. 8. 2, 논산

수신자:루블레 신부

친애하는 신부님,

매일 포교성에 교구에서 교구 현황 보고를 보내야 합니다. 본인이 이 보고서를 포교성의 질문에 따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질문에 다른 설명을 붙이지 마시고 다만 대답이나 숫자만을 해당 난에 기입하시고 될 수 있는 한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밀 드브레 주교

질문	대답
남아 교리 학교의 수는? 이 학교의 선생수는? 이 학교의 학생수는?	
여아 교리 학교의 수는? 이 학교의 여교사수는? 이 학교의 여학생수는?	
남아 가톨릭 서당의 수는? 이 학교의 교우 교사수는? 이 학교의 외인 교사수는? 이 학교의 교우 학생수는?	

이 학교의 외인 학생수는?	
여아 가톨릭 서당의 수는? 이 학교의 교우 여교사수는? 이 학교의 외인 여교사수는? 이 학교의 교우 여학생수는? 이 학교의 외인 여학생수는?	
남아 가톨릭 소학교수는? 이 학교의 교우 교사수는? 이 학교의 외인 교사수는? 이 학교의 교우 남학생수는? 이 학교의 외인 남학생수는?	
여아 가톨릭 소학교수는? 이 학교의 교우 여교사수는? 이 학교의 외인 여교사수는? 이 학교의 교우 여학생수는? 이 학교의 외인 여학생수는?	
지난해 본당에서 소위 외교 조당을 관면하고 집전한 혼배수는? 지난해 본당에서 한 강론수는? 공소 때 공소에서 한 강론수는? 외인 학교에 다니는 본당의 남아수는? 외인 학교에 다니는 본당의 여아수는? 교구가 아니라 본당에 속하는 논의 마지기수는? 이 논들의 현 시가는? 이 논들의 연 소출은? 본당 소유의 밭의 평수는? 이 밭들의 현 시가는? 이 밭들의 연 소출은?	

	남	여
전교 회장 공소 회장 수세권자		

논산에서 루블레

5) 제5신(1923년 연말 보고)

발신일:1923. 4. 13, 논산

수신자:뫼텔 주교

주교님,

통계가 유행이므로 연말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몇 가지 숫자를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새 냉담자, 즉 축첩자 또는 외인에게로 달아난 사람, 또한 냉담자 수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22명입니다. 저의 구역의 옛 냉담자들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60세대가 됩니다. 신자들 가운데로 이주한 사람은 86명, 돌아온 사람은 123명입니다. 논산은 단독으로 64명이나 됩니다. 다소 오래 냉담했다가 교회로 돌아온 사람은 5세대 그리고 세 사람입니다. 한 큰 마을이 모두 움에 걸려 봄에 공소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 작은 성당 하나와 아주 안락한 신부 댁 하나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관례에 따라 줄리앙 공베르 신부의 지도로 회장 피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천주교 청년회가 논산에서 조직되었는데 아마 또 가장 큰 교우촌 한두 곳에서도 조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소년들과 청년들은 부기, 그림, 음악, 운동 그 밖의 여러 것을 열렬히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알아야 하니까요.

신학교 교장이 기꺼이 논산에 보내 준 박 말구(朴東憲) 부제는 공소 방문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는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고 성가를 가르치고 매일 저녁 그들의 흥미를 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훈적인 시기에서 기인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저의 기분 나빠함을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교우들은 진심으로 그에게 애정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우들은 훌륭한 정신과 선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잘 자라는 것은 벼뿐이고 비가 올 때면 더욱 잘 자랍니다.

이 착한 교우들도 비가 올때만 정말로 착한 교우들이 됩니다.

루블레

6) 제6신(1923년 학교 설문³³¹⁾)

발신일:1923. 논산

수신자:뫼텔 주교

남아 교리 학교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여아 교리 학교

학교수

여교사수

여학생수

서당

남아 학교수

교우 교사수

외인 교사수

교우 학생수

외인 학생수

여아 서당수

교우 여교사수

외인 여교사수

교우 학생수

외인 학생수

남자 쇼학교

학교수

교우 교사수

외인 교사수

교우 학생수

외인 학생수

여자 소학교 학교수 교우 여교사수 외인 여교사수 교우 여학생수 외인 여학생수	
본당 소속 논 몇 마지기? 현 시가 연 소출	
본당 소속 밭 평수 현 시가 연 소출	
연간 혼배수 교우 결혼 혼종혼混宗婚	
연간 강론수 교우 대상 외인 대상	
연간 미사 예물수	
영정 미사	
사망자 어른 어린이	
전교 회장 남자 여자	0
본당 소속 가옥 수 현 시가 연 소출	0 0 0
은행소 예금	1,685엔
기타 예금	0
디세, 호세 등	4.53
본당 소속 토지세	0

세권자	
남자	2
여자	1
열교에서 개종자	0
외인 학교 통학 학생	
남학생	31
여학생	1
프로테스탄트 학교 교우 통학생	
남자	0
여자	0

루블레

7) 제7신

발신일:1925. 7. 6, 대전

수신자:뫼텔 주교

주교님,

저는 대전의 토지 등기를 위해 이 요셉(李鍾順) 신부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내 대서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룡(飛龍)에서 문산으로 이주한 면장이 서명한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 신부가 문산 이천(伊川)의 증명서를 보내 왔습니다만 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증명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증명서를 얻는 데 특별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그 증명서가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경구.

루블레

8) 제8신

발신일:1927. 4. 1, 대전

수신자:뫼텔 주교

주교님,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는 일에 있어서 일찍이 선교사들의 위로로 불리던 것이 오늘날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진지하게 천주교를 찾고자 하는 외교인이 아주 드물어지고 반대로 변절하여 외교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매년 하나, 둘, 다섯 가구들이 외교인 가운데로 이주하여 교우들과의 모든 접촉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첫해에는 성사를 받으러 오는 노력을 보이지만 그러는 동안 마음이 변해버려 미구에 침을 두고 딸자식을 외교인에게 시집보내다거나 심지어 미신까지 함으로써 교우들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격려할 임무가 조금씩 우리 모두, 즉 선교사들과 회장, 교우들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흔히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본당의 21개 공소들 중에서 옹기촌 한 곳만이 교우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공소들은 교우 3~4 혹은 5가구가 외교인들 한가운데 섞여 살며 그들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무 집행을 마친 후에도 재난을 겪은 후에도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보고 저는 “불쌍한 사람들, 지금의 너희 처지가 자업자득이지”라고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상 두 가지 점 외에도 대부분의 공소에서 교우들의 태만함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답을 한마디도 모르는 15세 아이가 혼례를 치르기 위해 억지로 교리를 배우니 곧 잊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외교인이나 다름 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강요로 받는 성사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본명만이 남아 있는 이 태만한 자들을 사죄하고 성체를 주자면 손이 떨립니다.

교구의 특히 본당의 일반 사업에 교우들이 기여하는 문제가 이미 몇 해 전부터 연구되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규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회 당국에서 승인했다.

둘째, 참석한 회장 전원이 만족을 표명하고 동의했다.

셋째, 본인이 안건을 설명하고 완전히 자유로이 행동케 했다.

넷째, 극빈자들은 완전히 면제받는다.

다섯째, 성사와 기부금을 내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여섯째, 성당을 짓는 문제에 대해 본인은 교우들에게 요구한 바가 일절 없었으며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다. 공소에서는 돈 이야기를 일절 못하게 했다.

일곱째, 기부금 할당은 회장 피정 때 한다. 올해 회장 피정은 예년처럼 봄에 할 수 없어서 가을 9월 말로 연기되었다. 그래서 금년도 기부금 할당은 본인이 했다.

주교님께서서는 동봉하는 교세 통계표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첫째에는 구식대로입니다. 공소 교우들의 기부금 할당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현저하게 줄었고 쓸데없는 지출도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난필을 용서하십시오. 새로운 규칙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할 점이나 지시 사항, 의견, 그 무엇이든 주교님의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부금이 잘못 할당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주교님께서 고쳐서 돌려 보내주십시오. 아직 저의 머리가 건전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경구.

2. 2대 J.공베르(공안제) 신부의 서한

1) 제1신(1924년 연말 보고)

발신일: 1924, 논산

수신자: 뫼텔 주교

주교님,

제가 논산본당을 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주교님께 공소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당의 교리 지식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약해 보입니다.

첫 번째 공소는 옹기촌인데, 거의가 신입 교우들로서 어린. 아이 모두가 교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장은 신부에게 잘 순명하는 선량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교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고해자들은 겨우 20여 명입니다. 두 차례의 판공 때 복사는 하루 종일 그들에게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주요 교리를 가르쳐 거의 다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교우들은 서로 화목하여 노름도 안 하고 폭음도 안 합니다. 이상은 서평리 공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대전 땅의 오리동 공소인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몇 해 전부터 교우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바람에 공소는 예전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척이나 좋았던 이 공소가 오늘날은 거의 폐어가 되었습니다. 거의 80명의 고해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노름과 술에 빠져서 한대 뭉치기는커녕 독불장군처럼 굴므로 그곳 회장은 그들에게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그를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공소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5~6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단치 않게 보입니다. 저는 회장의 권위를 강화시키느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공소 동안 무지한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만, 올가을 판공 때 가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공소를 끝으로 대전 땅을 떠나 논산군으로 들어가 공소 동안 내내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첫 공소는 한삼내였는데, 신입 교우들이 있는 작은 농촌으로 아이들의 교리 학습이나 글공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그들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서나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을의 공소 회장은 교육을 꽤 받은 구교우인데 불행히도 이곳에서 살기가 힘들어 제물포로 이사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0여 년을 산 새 영세자에게 세권(洗權)만을 붙여 그를 대신하도록 했는데 그의 처는 구교우입니다. 그곳에는 30여 명의 고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남방 교구에 속하는 되재 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쇠목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구교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산악 지대로 예전에는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담배 경작 금지령으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크기 때문에 교우들은 외교인들의 풍습에 젖어 버려서 교리를 배우지 못해 신앙심이 약한 교우들이라 회장의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 시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출석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모임은 어찌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 미사 참석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르트네³³² 신부는 주일 본분을

지키는 교우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곳에도 역시 노름꾼과 냉담자들이 있어서 지난가을 이후로도 한두 가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공소 방문 후 저에게 남은 인상은 교리에 대해 무지하고 교리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것이며, 교우들이 지나치게 외교인들과 어울려서 주일을 좀 지키는 것 외에는 거의 그들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갈매울이라는 큰 마을로 갔는데, 새로 집을 옮겨 잘 가꾸어 강당을 갖춘 웅기촌으로 고해자는 150명을 헤아리고, 약 200명의 주민 모두가 교우입니다. 그곳에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적습니다. 회장은 그렇게 확고해 보이지도, 또 큰 열의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아이들의 무지는 모든 부분에 걸쳐 있어 보입니다. 무지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에게 교리에 대해 질문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를 아는 한 청년과(그는 예전에 신학생이었습니다), 동정녀로 보이는 30대의 한 여인 덕분에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여자 아이들을 위해 교리 학교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내년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보겠습니다.

교우들을 다루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테 모이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주일 침례를 바치려고 온갖 구실을 찾으며, 날마다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명단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가 형편이 부유한데도 오직 돈 벌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소를 떠나 평야 지대로 들어가 죽평과 무동을 방문했는데, 구 교우촌인 이 두 공소는 오늘날 거의 쇠퇴한 곳입니다. 죽평 공소에는 아직도 30여 명의 고해자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덕가골의 교우들이 옴으로써 그곳에 남아 있던 소수의 교우수에 합쳐졌기 때문입니다(독가골은 공소 회장이 죽고 한 가구가 옥구로 이주해 가는 바람에 공소가 없어졌습니다). 그곳에도 냉담자들이 있으나 제가 아는 사람은 회장의 아들들뿐입니다. 그곳에 있는 3~4명의 남아들은 두 차례의 공소 방문을 통해 너무 급하게 배우기는 했지만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교우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곳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동 공소에는 8~9명의 고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즉 오늘 내일 임종을 기다리는 과부 노파 몇 명과 세 식구를 둔 한 젊은 가정과 두 명의 냉담자 아들을 둔 회장이 전

부였습니다. 이것이 공소의 현황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우울하고 맥이 빠져 버렸습니다. 가을에 저는 제 나름대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교리도 좀 가르쳤고 몇몇 진리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그들의 본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들이 저의 말을 이해했을까요? 하지만 봄 판공 때는 단 한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7~8명이지만 서너 군데의 다른 마을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고해가 끝나면 각기 자기 집으로 간 모양입니다. 저는 그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논산 옆에 위치한 연서리에는 구교우촌 은진읍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헌신적인 회장과 구교우 가정의 몇 있으며, 나머지는 공소에서 5~1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신입 교우들입니다. 그러므로 회합도 없고 아직은 교리 공부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이들을 한 번에 모이게 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그들로부터 겨우 십 리 거리이므로 논산으로 와서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수가 저의 말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회장이 아이들을 위한 예비자 주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냉담자가 있고, 특히 많은 교우들이 군산 근처의 옥구나 되재 본당으로 옮겨 가 교우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고해자의 수도 작년에 비해 현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냉담자들을 알지 못하지만 상당수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봄에는 아이들의 교리 교육이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른들도 따라서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소와 전의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큰 외교인 마을이 있는데, 강경이 역에서 7,800m 거리인 그곳은, 다른 두세 가정과 함께 박해를 받았던 최(崔良業) 신부의 친척이 되는 최씨 일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30여 명의 고해자가 있으나 교우들은 교리에 무지하고 교우 정신이 박약하며 아이들의 교육 부족으로 14~15세 된 아이들이 기본 교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십이단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앙심이 부족하고 온 정신이 생업에만 쏠려 있습니다. 강경이의 이웃 마을이면서 외교인들과 섞여 있는 초라한 이 공소에는, 그곳에서 5리 거리도 안되는 나바위로 미사 참례하러 가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습니다. 이 교우촌 바로 옆에 있는 강경이에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날그날 살아가느라 수계할 시간도 없고 쉽사리 냉담자가 되어 버리는 많은 주변 사람들 속에 열심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회장들은 교우 전체의 근황을 알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올해 공소집 한 채를 매입했는데 그 집은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손질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방 두 칸에 거의 120명의 교우들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교우들을 한 번에 모이게 하는 일은 고역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있을 때, 혹은 오고 싶을 때에나 옵니다. 또한 몇 명은 나바위로 가서 미사에 참여하는데 남방 교구³³³의 신부가 아주 가까이 있으므로 그들은 논산과 거의 아무런 접촉을 갖지 않습니다.

다수의 냉담자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외교인과 결혼을 시켰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본처와 헤어져 첩을 두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악의를 품고 교회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에 복받치는 슬픔을 안고 그곳을 떠나 약 2km 떨어진 불암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세 곳의 큰 교우촌을 형성하고, 그 외에 남은 25명 가량의 고해자들이 작은 공소를 이룬 곳인데, 아이들의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무식함은 다른 어느 공소에서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두 차례 방문을 통해 저의 복사로부터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듯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의 매년 침수되곤 하는 논 몇 마지기로 농사를 짓고, 매일 강경이로 가서 일한 값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떠나 공주에서 40리 떨어진 곳에 약 35명의 고해자가 있는 작은 공소로 갔습니다. 올봄 그곳에 살던 회장이 한 가구와 함께 공주로 이주하여 대장이나마 회장의 일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련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빈곤을 겪는 만큼 천상 재물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들을 보살펴 줄 권한과 아이들에게 영세 줄 수 있는 권한을 그 회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가을·봄 공소 때를 이용하여 교리를 좀 배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보면 어쩌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본당에 관한 보고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논산 지역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교우들을 오게 하여 교리를 듣게 하고 성체 강복에 참석하게 하는 등 교리 교육 면에 있어서 할 일이 많습니다만 끈질긴 인내심을 갖는다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5~30명가량의 어린 여아들의 두터운 신심과 열의가 돋보여서 조그마

한 학교나 유치원이 요망되고 있으며,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녀들의 지원을 부탁했습니다만 주교님께서 원장 수녀님께 재촉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톨릭 청년회는 잘되어 가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회합에 참석하여 진지하고 교육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내부에 아연관을 입힌 관과 함께 영구차를 한 대 마련하여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도 이 청년회에서 한 일입니다. 교우 전용이며 사체死體를 교회에서 장지로 운반하는 사람도 그들입니다. 초상집에서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되며, 특히 초상집이 가난한 집일 경우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아동용 작은 관도 하나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내부에 아연관을 입힌 이 관을 메는 일은 아이들 담당입니다. 이 관은 닦고 소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모든 장비를 보관해 두기 위해 출입문 옆에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거나 정구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일을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교우들과 심지어는 외교인들도 곁에 붙들어 둘 수 있었습니다.

교우들은 임종 대세를 주는 일과 연도를 바치는 일에 열심입니다. 주교님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담자인 한 가난한 여인이 논산에서 10리 떨어진 곳에서 임종을 맞아 신부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가서 그녀의 혼인 문제를 풀어 준 다음 그녀에게 중부성사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연도단이 매일 가서 그녀를 권면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기도문을 읽어 주었습니다. 교리가 끝난 후 저는 그녀에게 노자 성체를 주었으며 그 이튿날 그녀는 임종했습니다. 교우 모두가 영구차를 따라가 장례를 치르었기에 외교인들이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내내 교우들이 외교인 집에서 음식에 손도 안댔기 때문에 나중에는 외교인들이 거의 섭섭해 할 정도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이튿날, 그들은 저에게 고마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지역에 있는 냉담자들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언제나 좋은 표양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성당은 점점 비좁아져 장차 신축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냉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데 없지만 많은 냉담자들이 미신에 완전히 빠져 있기에 저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 저의 본당에 대해 아주 피상적으로나마 개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전교 회장 한 명과 여회장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비가 너무 드는 일이고 현재 여학교 하나를 계획하고 있기에 그 모든 일들을 병행시킬 수 없습니다. 교우들은 나

름대로 새 성당 건축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은 울타리 안에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제 자신도 이끌 줄 모르는 제가 조선인 사제를 지도한다는 것은 무거운 부담입니다. 특히 의사 소통이 안되거나 그 사제가 그리 현명하지 못할 때 부담감은 더욱 큼니다. 대체로 조선인 사제들은 내적 생활이 부족하고 초탈하지 못하며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위에서 초기에는 아무런 나쁜 점도 보지 못하고 또 나쁘게 되어 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서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터질 수 있습니다. 저의 보좌신부의 행동에서 그런 점을 보았는데, 21세 처녀에게 그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것을 저는 단호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엄격하고 부드럽게 그를 다루어야 했고, 결국 그는 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정 때나 신학교에서 이러한 점을 더욱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이 점을 환기시켜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한낱 선교사로서 지나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교의 권위나 지침을 침범하고자 하는 의향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경구. 저와 저의 교우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J.공베르

2) 제2신(1927년 연말 보고)

발신일: 1927. 4, 논산

수신자: 뮌헨 주교

주교님,

막 끝난 지난 한 해 동안의 공소 방문 중 복음을 전파하고 혹은 그것을 저해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두드러진 일은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외교인 무리 속에 침투되고 또한 일본 세력의 확산을 쉽게 한 프로테스탄트 때문에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오로지 돈벌이로만 향해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하며 또 그것이 일상사가 되어 버려 복음의 진리를 강조해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학교들도 그 교육이 아주 많은 분야에서 위조되어 있기에 좋은 씨앗을
돋지 못하고,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선한 교우들에게까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영향
을 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자신의 언행이 가져다줄 결과에 대해서
는 생각지도 않은 채 거의 충동적으로 발설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 수 없
습니다만, 그 근본이 가톨릭적이 아닌 언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그들에게 인
식시키기 위해서는 외교술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에 그들을 설득시
키려다가는 오히려 이해력이 없고 뒤떨어진 신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작년 저의 교우수는 1,224명이었는데 올해는 39명이 증가하여 1,263명이 되었
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오로지 사망자 수가 감소한 반면 지난해에 비해 적은 수이기
는 하지만 출생자 수가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계표가 더욱 상세한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작년 보고서에는 65명의 출생과 51명의 사망이 기록됨으로 인해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55명의 출생자에 비해 사망자는 겨우 28명이므로
출생자수 27명이 초과된 셈입니다. 또한 9명의 성인 영세자를 첨가시키면 36명이 됩
니다. 다른 3명의 교우는 조선에서 아주 흔한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공소에서
는 교우수가 현격하게 감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쇠목에서는 105명에서 87명으로 줄
었습니다. 본당 밖으로 3가구가 전출해 갔고, 작년까지만 해도 썸에 넣었던 몇몇 냉담
자들이 완전히 미신으로 돌아섰기에 올해는 그들을 결정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본
당에는 15년간이나 냉담하고 있는 냉담자들이 많습니다. 몇몇은 아직 돌아올 가능성
이 있기에 교우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신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면 결국 제외될 것입니다.

본당인 논산은 적지 않은 교우수가 증가하여 230명에서 273명이 되었으며 금
년에 2가구가 기별을 보내왔고 또 잇따라 더 올 것입니다. 이 가구들은 거의가 산악
지대에서 담배 농사를 해 오던 파르트네 신부의 본당에서 왔습니다. 전매령이 포고된
이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평야 지대로 이주하려고 합니
다. 그들이 받은 담배 값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며 근근이 생활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는 타지역으로 떠나려고 하여 여러 가구가 이곳의 친지들을 통해, 혹은 영향력이 좀
있는 교우들이 그들에게 경작할 토지를 쉽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곳으로 옵니다. 따라
서 본당의 교우수가 증가하여 평일에는 적당한 성당이 주일이나 침례 때에는 콩나물
시루가 되어 버립니다. 더구나 이곳은 회장들과 지도자들 덕분에 형제애와 순명심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희망을 말하거나 지시를 내리기만 하면 모두가 그것을 따릅니다. 단 한 가지 그들에게 힐책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좀더 열의를 내어 이제 배우기 시작했거나 배우기를 원하는 외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부탁한 대로 몇 명이 지난겨울에 열성을 보였더라면 본당에 서만도 10명의 성인 영세자를 얻었을 것입니다. 예비자들도 계속 고해 문답이나 영세 문답 또는 십이단만을 배우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침례일의 가톨릭 청년회 회합에서 그들의 회장이 그 점에 대해 언급하며 신부로부터 늘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동료들에게 행동으로 옮겨 줄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연서리 공소에는 열심인 회장이 있는데 교우들이 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타락은 아니고 조금 타락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요소가 있는 곳입니다. 오리동 공소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 회장은 충분한 권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좋은 교우입니다만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술꾼들과 노름꾼들이 판을 치고 가난이 뿌리박혀 있기에 지난가을에는 약 15명의 교우들이 성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봄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슬픈 공소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온갖 비참에도 불구하고 강경이는 조금은 중요한 교우 중심지입니다. 소수의 열심한 교우들이 있고 헌신적인 회장이 모든 가련한 영혼들을 모으려 열심인데, 이 가련한 사람들은 겨우 생활을 꾸려나가거나 아니면 일본인 집의 하인으로 전락하여, 그 결과 주일을 늘 지키지 못하며 특히 장날이면 주일을 꺾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을 훈계합니다만 그들은 공소 때 겨우 고해성사를 받으러 올 뿐이며(그것도 회장이 두세 번씩이나 찾아가야 합니다), 문답을 찰고 받으러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영성체를 하느라 대거 몰려오는데, 그때 서야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소들은 그러저럭 되어 가고 있으며 악의는 없으나 세속 정신과 특히 교리의 무지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러한 연유로 더욱 저는 주교님께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련한 목자를 위해 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J.공베르

3) 제3신(1928년 연말 보고)

발신일:1928, 논산

수신자:뫼텔 주교

주교님,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치 계산을 끝냈습니다. 외교인 개종자수는 많지 않습니다. 성인 영세자수가 14명이요 임종 대세자가 21명, 모두 35명입니다. 본당에서만도 더 많은 영세자를 기대했었습니다만 외교인들을 가르쳐야 했을 교우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나태했던 탓에 영세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가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공부하여 성신 강림 침례나 성모 몽소 승천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소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성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루르드의 성모께 봉헌되었는데, 본당의 설립자이신 루블레 신부가 루르드의 성모를 주보 성인으로 정하고 그 성모님께 지금 성당의 부지 매입 성공을 부탁했었습니다. 성당 건립은 무세 신부가 설계해 준 덕분에 완공되었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일이라 많은 근심을 자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심도 없어졌습니다. 교우들이 관대함을 보였고 그래서 저는 이점에 있어서 그들을 칭찬하고 축하할 따름입니다. 이제 그들은 평일에도 아름다운 성당 안으로 찾아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침례 때는 성당이 비좁을 뻔했으나 교우들이 서로 자리를 좁혀 겨우 성당 안에 모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전 침례 때보다 더 많은 수가 멀리서 왔습니다.

교우들은 일반적으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교리에 무지하다는 것이며 배우는 데 취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당에서는 공립 학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 그리고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본 학교 외에도, 주일에는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교리 풀이를 하고 함께 외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학습에 꾸준한 반면 청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리 풀이가 더욱 유용할텐데 그들은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아니면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충분히 단호하게 단속하지 않는 부모들 탓입니다. 차라리 '노인회'라고 해야 할 가톨릭 청년회는 꾸준

하게 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회합은 종종 미적지근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유대감을 주는 유일한 것이라 가능한 한 장려하고 유대를 강화하려 합니다. 청년회에서는 매달 첫 금요일에 월례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러한 독실한 습관을 기르라고 틈이 날 때마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신앙심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나 교우들 일이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면 늘 이 회합을 주도합니다. 회합은 일요일 아침마다 계절에 따라 10시나 11시경에 시작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때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평일에는 여교사가 맡아 가르칩니다.

공소들 가운데 회장들의 피정이 있는 후 가톨릭 청년회를 구성한 곳은 강경이뿐입니다. 현재 그들은 아주 열심이며 단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활 침례 일에는 거의 전부가 논산에 와서 미사에 참석했고(나바위로 가는 대신) 20여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단결하여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며 특히 불행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일마다 나바위 미사에 참석하며, 돌아가서는 복음을 읽고 교리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제가 지난가을에 임명한 신임 회장 덕분인데, 그는 활동적인 젊은이이고 올해 처음으로 회장 피정에 참석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종종 그들에게 좋은 생각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 후에는 변함없는 의지를 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은 본당 처녀들보다 더욱 외교인들에게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상인들인 이 젊은이들은 동료 상인들과 구매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교리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들의 선의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20세에서 40세까지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암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무지함이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그곳에도 신임 회장을 임명했으니 그가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공소는 아주 작으며 교우들은 가난하지만 착합니다.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가난 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매일 강경이로 품을 팔러 나가 그 값으로 조나 쌀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작한 농작물은 매년 침수되어 잃게 됩니다. 대전군에 남은 또 하나의 공소(오리동)에서는 지난가을부터 무언가를 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공소는 좋지 못하네 노름이나 여자 혹은 술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지난가을에 저는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회장의 말도 안 듣고 순명

도 하지 않으며 교무금을 내는 일에도 악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봄에 가 보니 변해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이가 매일 저녁 모여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고, 다른 아이들은 교리 문답과 기도문을 배우고 교리서를 읽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4~5명이며 다른 이들은 순번대로 맡아서 합니다. 그 결과 주일은 더 잘 지키고 복음 실천이 더욱 잘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남아들에게 해 주는 것처럼 여아들에게도 해 줄 수 있는 신심 있는 여자를 구해야겠습니다.

갈매울에도 역시 그곳의 처녀가 교리 교사를 맡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남아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형편입니다. 예전에 청년 한두 명이 교리 학교를 시작하여 저도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당에는 논산의 가톨릭 청년회와 앞서 말씀드린 강경이에서 새로 형성되고 있는 청년회 외에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외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일들은 이루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외교인들에게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청년회에 그렇게도 주입시키는데, 청년회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외교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관해 몇몇 교우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종교에 대해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수궁은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논쟁을 벌이고 그다음에는 선의의 각오가 없으므로 호지부지되고 만다고 대답합니다. 극소수의 장사꾼들과 난봉꾼과 어려운 형편의 모꾼들 몇 명만이 있는 논산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장사꾼들은 접근할 수조차 없으며, 난봉꾼들은 웃고 빈정거리며, 일꾼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전교 회장 몇 명을 두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제들이나 선교사들은 보수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자 회장 한 명과 여자 회장 한 명이 필요하지만 꼭 한 명밖에 둘 수 없다면 여자 쪽을 택하겠습니다. 여자는 보다 더 쉽게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자와 남자들을 더 잘 다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회장들의 피정은 2월 초에 시작되어 성당의 주보 성인인 루르드의 성모 침례날에 마쳤습니다. 강(姜道永)신부가 피정 강론을 맡아 주어 잘되었습니다.

이 구역의 피정은 1912년 혹은 1913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들은 피정에 익숙해 있고 모든 이로운 이야기들을 들어 왔습니다. 피정을 하는 회장들은 거의 같은 사람들이라서 하기는 잘하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마치 회초리와 같은 작용이 되어 그들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저는 첫 피정이거나 혹은 세번째 네번째 피정을 하게 되는 신임 회장 두세 명을 보고 이 점을 호가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당신부가 아닌 다른 신부가 피정을 지도할 때면 효과가 훨씬 큼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거나 바쁜 이유로 지도신부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좋은 묘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금년 피정 때에 가톨릭 청년회에서 회장 한 명과 부회장 한 명 그리고 사무처장 및 경리부장 셋을 뽑았습니다. 그 효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더 큰 헌신과 열의와 신심을 피정에 쏟았습니다.

수고와 근심을 많이 하고도 얻은 결과를 보면 너무 한 일이 없고 성과가 적다고 생각되어 오히려 실망하게 됩니다. 겸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이라고 하려면 두 번은 더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도시에서 외교인들에게 포교하기란 어렵습니다. 복음화에 적합한 곳은 아직은 농촌입니다.

예전에 교우 가정이었다가 아들들이 30여 년 동안 냉담해 온 한 가구가 있는 마을에서 다시 신앙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냉담자가 회두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 오래전부터 프로테스탄트였던 그의 가까운 친척들이 천주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렬한 프로테스탄트였던 한 과부는 천주교가 무엇인가를 알고서는 교우가 되기를 원했고, 그녀의 식구 전체와 친척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점차 지원자수가 증가하여 그들이 신부 댁으로 찾아와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가끔 일요일에 가톨릭 청년회 회원 한 명을 보내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외교인 남녀의 수는 약 30명입니다. 가을에는 그들과 섞여 사는 논산의 한 교우가 그들에게 초대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후 그 외교인들은 더욱 열심이었고 더 부지런히 수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에 불을 당긴 것은 한 성인의 임종 대세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프로테스탄트였던 가정의 할머니가 사순절 초 임종 직전에 대세를 받고 사망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냉담자와 신입 교우들이 사제관과 2~3명의 교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영구차를 동원했고 사방에서 교우들이 모여 왔는데, 이것이 외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장례식은 엄숙하면서도 소란스럽지 않게 치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신앙심이 돈독해졌으니 부활 침례 때에는 한 가족 네 식구가 모두 영세했고, 10세부터 42·43세까지 수제하지 않았던 냉담자의 처와 아이들이 영세했고, 또 다른 한 청년은 그 마을로 이사 온 논산의 한 교우 집에 양자

로 들어가 어른, 아이 등 모두 8명이 영세를 했습니다. 현재 예비자 수는 10명이 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을 전에 4~5명이 더 영세할 것이며 공소 때에는 그들 자체 내에서 공소를 치를 것입니다. 공소 집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이 신입 교우들의 공소를 위해 주교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잘것없는 이 선교사에게도 주교님의 강복을 청합니다.

J. 공베르

4) 제4신(1929년 연말 보고)

발신일:1929, 논산

수신자:뫼텔 주교

주교님,

올해의 교세 통계표는 많은 영세자를 제시하지 못하니 1927~1928년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 올해의 더 많은 수를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작년과 다름없는 학습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다고 천주교를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면서 진전도 퇴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두 가정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영세받게 했으며 또 그보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교리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부모들 역시 자녀들과 함께 교리 문답을 배우고 미사에 참석하지만 마지막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있고, 뿌리 깊은 이교異敎주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일 년 이상 저는 동포들을 개종시키는 데 교우들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설교를 끝낸 후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납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론을 실천할 단계에 이르면 팔짱만 낀 채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조선인들이 그렇듯이 사랑이나 혹은 그 외 다른 곳에서 장황한 담판이나 벌이다가 끝내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의 무기력함 앞에 조금 낙담하기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무기력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논쟁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영적 갈증을 갖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동향인에게 복음화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마침내 이해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외교인들에게 접근하는 데에는 그들과 같은 동족들을 통해 접근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주교님께서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일러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그 방법을 따라 매일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답보 상태에 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외교인들을 보살피도록 이끌었던 이 지역에서는 교우들이 아이들과 임종을 맞은 성인들에게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는 성과를 얻어 지난해보다 월등히 많은 임종 대세자 수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열의를 장려하여 영세자의 부모들에게도 전교하여 그들을 성교회로 데려오고, 또한 교우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더욱 힘쓰도록 고무시킬 것입니다. 제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일 먼저 저의 열의가 식어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교리 학습을 조금 늘려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또 암기도 시킵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어서 요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그 일에서 벗어나도록, 아니면 가능한 한 그 일에 조금 덜 매달리도록, 그리고 특히 제가 부재일 때를 위해서 저의 보조자가 우선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상당수의 교우들이 매일 미사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5리 혹은 9~10리 떨어진 곳에 사는 교우들이 주일 미사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일이나 지켜야 할 침례 때에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공과로 침례를 보아도 소용 없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본당 공소는 특히 성당 바로 곁에 형성된 두 곳의 웅기촌으로 인해 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나는 성당 소재지인 창말읍과 같은 마을이고 다른 하나는 3리 거리에 있습니다. 1928년 봄에 7~8가구가 그곳으로 왔었습니다. 아마도 대전이나 공주의 웅기촌에서 영락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리 충고를 해 보니 그 아이들은 외교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조차 교리 공부에 게을러 가정에서의 학습을 완전히 포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웅기촌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엄격한 생활을 하게 하자 1월과 2월에 벌써 4가구가 다른 본당으로 이사 갔습니다. 저는 있는 줄도 몰랐던 냉담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회두하여 금년의 교우수는 1,383명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 안에는 일본인 가구 셋의 17명 교우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본당 교우들 사이에 그리스도적 삶을 영위하고 또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주일 미사 후에 갖는 가톨릭 청년회의 회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틈타 교리를 강의하고 있기에 남아선 여아선 아이들은 모두 강의에 오도록 하고, 가능하면 여자들도 오게 합니다. 여자들을 오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강의를 끝나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청년회를 위해 할 일은 그때에 합니다. 오후 2시에 성체 강복을 한 후 묵주 신공을 바치고, 그리고나서 아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외우게 합니다. 청년 3명과 두 여자가 교사 역할을 맡아 해 주고, 여교사 한 명과 저는 여러 방을 돌아보며 아이들의 학습이 잘되는지를 봅니다. 봉재 동안에는 매일 미사 후 성로선공에 많이 오고 첫 침례 6과 주일에는 장엄하게 성로선공을 합니다. 매월 첫 금요일 모임은, 제가 그 전 일요일에 그 모임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공소들의 교우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나태함으로 그들을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두 공소에 주일 예비자 반을 둔 것이 고작입니다. 강경이에서는 새로 임명된 신임 회장과 작년에 조직된 가톨릭 청년회 덕분에 보다 더 꾸준한 미사 참석과 보다 많은 교리 공부를 하고 있기에 본당 밖에 가톨릭 청년회가 구성되어 대체로 잘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공소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점을 회고해 볼 때 별로 해 놓은 일이 없어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어떤 시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교우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만 저 또한 그들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교님께 저와 저의 교우들 그리고 이곳의 외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J. 공베르